

최근 經濟動向

이 규 철

I. 주요업종별 동향

◇ 자동차(自動車)

IMF의 한파(寒波)속에서도 지난 9월중 자동차 생산은 자동차업계의 조업정상화, 내수(內需) 및 수출의 완만한 회복세 등에 힘입어 가동률(稼動率)이 60%대가 되면서 금년들어 월중 최고치인 205천대에 이르렀다.

그러나 전년동월대비(前年同月對比)로는 10.3%의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며, 내수도 현대자동차의 공급(供給)再開, 정부의 소비촉진책 등으로 다소 회복되었으나 전반적인 판매부진이 지속되어 전년동월대비 43.2% 줄어든 77천대에 그쳤다. 차종별(車種別)로는 승용차의 경우, 전반적인 침체의 계속으로 전년동월대비 50.5% 감소한 55천대에 머물렀지만, 경차(輕車)와 다목적용 승용차의 호조세가 이어졌고 소형 승용차의 판매도 다소 회복세를 보였다.

상용차(商用車) 역시 전년동월대비 12.0% 감소한 23천대에 그쳤으나, 고용불안에 따른 소규모 自營業者가 늘어남에 따라 1톤 트럭 및 버스 등 각종 경소형 상용차의 수요가 활기를 띠어 이 부문에서의 감소폭은 다소 둔화되었다. 수출에 있어서는 자동차회사내의 파업으로 지

연된 수출물량이 공급재개되고, 경차 수출도 호조를 보여 전년동월에 비해 40.1% 증가한 123천대에 이르렀다. 지역별로는 서유럽으로의 수출이 경차의 수출호조로 전년동월대비 109.1% 증가하였고 北美 수출도 기아자동차의 판매망 확충 등에 힘입어 29.6% 증가한 반면 동유럽, 아시아, 중남미로의 수출은 이들 지역의 경기침체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7.6%, 51.4%, 6.6% 감소하여 부진을 면치 못 하였다.

◆ 자동차 ◆

(台, %)

	1997. 9월		1998. 9월		98.1~9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 生産	228,038	△2.5	△0.2	204,611	108.3	△10.3	1,358,588	△35.2
· 出荷	223,789	△8.6	1.1	199,994	73.4	△10.6	1,458,191	△30.5
(內需)	136,268	△10.9	14.5	77,375	65.1	△43.2	553,178	△53.0
(輸出)	87,521	△4.7	△6.1	122,619	79.1	40.1	905,013	△2.0

자료 :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 전기/전자

9월중 전자제품 수출은 해외시장의 수요 위축, 국내 수출금융의 경색(梗塞)지속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9.5% 감소한 3,236백만달러에 그쳤다.

부문별로는 산업용전자의 수출이 무선통신 기기만 9.4% 증가하였을 뿐, 컴퓨터와 유선통

신기기가 각각 $\Delta 29.3\%$, $\Delta 5.7\%$ 로 부진하여 전년동월대비 18.5% 감소한 734백만달러에 그쳤으며, 전자부품 수출도 반도체를 비롯하여 수동 부품, 기능부품 모두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4.6% 감소한 2,065백만달러에 머물렀다. 또한 가정용 전자수출은 영상기기가 $\Delta 26.0\%$, 음향기기가 $\Delta 19.1\%$ 등으로 부진하여 전년동월대비 14.6% 감소한 437백만달러에 그쳤는데, 구미지역에 대한 수출이 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들어 16MD램의 가격이 급등함으로써 반도체 수출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D램 가격의 상승은 세계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D램의 공급과잉과 가격하락에 대응하여 감산(減産) 또는 반도체사업의 축소를 적극 추진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6MD램 가격상승세의 지속여부, 현재 국내 업체의 주력제품인 64MD램 가격상승세의 연결 등에 대한 전망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 전 자 ◆
(白萬 달러, %)

	1997. 9월		1998. 9월		1998.1~9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輸 出	3,577	2.4	14.7	3,236	8.6	$\Delta 9.5$	27,564	$\Delta 8.7$
(産業用電子)	900	21.3	28.3	734	21.4	$\Delta 18.5$	6,319	$\Delta 8.1$
(電子部品)	2,165	$\Delta 4.5$	21.6	2,065	4.6	$\Delta 4.6$	17,099	$\Delta 7.6$
(家庭用電子)	512	5.5	$\Delta 19.7$	437	9.2	$\Delta 14.6$	4,146	$\Delta 14.0$

자료 :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 일반기계(一般機械)

9월중 국내 기계수주(機械受注)는 전년동월대비 14.7% 감소하였으나 민간부문의 감소폭이 줄면서 7, 8월에 이어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공공부문은 7, 8월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발주(發注)가 없어 전년동월대비 51.2% 감소하였고, 민간부문도 전년동월대비 5.2% 감소하

였지만 조선, 기타 제조업 등의 발주가 호조를 보이며 감소폭이 크게 줄었다.

한편 9월중 일반기계 수출은 미국, EU 수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국, 동남아 수출의 축소로 전년동월대비 12.5% 감소한 563백만달러에 그쳤다.

機種別로는 냉동공조기계와 금속공작기계가 전년동월대비 73.2%, 25.0% 각각 증가한 반면, 운반하역기계와 섬유기계 등의 수출은 부진하였다.

輸入에 있어서는 경기침체에 따른 설비투자의 위축현상 지속으로 전년 동월대비 56.8% 감소한 561백만달러에 머물렀는데, 건설광산기계, 금속공작 기계가 각각 $\Delta 67.3\%$, $\Delta 71.2\%$ 로 감소하는 등, 냉동공조기계를 제외한 거의 모든機種에 있어서 수입이 감소하였다.

◆ 일반기계 ◆
(百萬 달러, %)

	1997. 9월		1998. 9월		1998.1~9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輸 出	644	4.9	16.5	563	12.9	$\Delta 12.5$	5,231	$\Delta 3.6$

◇ 철강(鐵鋼)

9월중 조강(粗鋼) 생산량은 전년동월대비 11.3% 감소한 3,169천M/T을 기록하였다.

부문별로는 轉爐 부문이 포항제철의 본격적인 減産으로 인해 전년동월 대비 9.0% 감소한 1,849천M/T에 그쳤으며, 전기로 부문도 내수 침체 지속으로 전년동월대비 14.1% 감소하였다. 內需 역시 需要産業의 경기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30% 정도 감소하였다. 그러나 前月對比로는 금년 들어 처음으로 5~10% 정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집중호우로 지연된 각종 공사가 재개되고, 자동차, 가전제품 등 수요산업이 점진적으로 회복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는 건설용 자재인 철근, H형강, 강관을 비롯하여 열연강관, 전기 아연도금강관

등 대다수 품목의 내수가 전년동월대비 20~25% 정도 감소하였으나, 전월에 비해서는 5~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판의 내수는 造船業界의 수요증가에 따라 유일하게 전년동월대비 10% 증가하였다.

한편 9월중 철강재 수출은 업계의 수출증대 노력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18.9% 증가한 634백만달러에 달하였다. 국가별로는 미국, EU로의 수출이 스텐레스 제품에 대한 반덤핑 提訴 등의 영향으로 둔화된 반면, 중국으로의 수출은 홍수에 따른 중국내의 철강 생산차질 등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9월중 수출단가는 톤당 445.3달러를 기록, 전월대비 4.4% 증가함으로써 그 동안의 하락세가 진정되었는데, 이는 주요 수입국의 반덤핑 제소에 대한 부담감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비중을 늘려 나간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 철 강 ◆ (千 M/T, 백만불, %)

	1997. 9월		1998. 9월		1998. 1~9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粗鋼生産	3,572	△2.0	17.6	3,169	0.9	△11.3	29,877	△4.1
輸 出	533	△3.4	17.9	634	0.8	18.9	6,226	26.6

註) : 수출은 통관기준임

資料 : 1) 한국철강협회

2) 한국무역협회, KOTIS Data

◇ 石油化學

9월중 석유화학 생산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내수의 감소폭이 크게 둔화되고 수출도 높은 증가세를 유지함으로써 전체적인 業況은 다소 호전양상을 보였다. 생산은 생산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가격 하락 방지를 위한 업계의 가동을 하향조정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0.5% 감소한 1,101천톤에 그쳤다.

반면 內需 出荷는 계절적 盛需期 수요와 그

간 위축되었던 加工業界의 구매력 회복 등에 힘입어 최근 들어 가장 큰 호조를 보였다.

9월중 내수 출하량은 전년동월대비 3.7% 감소하여 감소폭의 둔화세가 이어졌으며, 前月에 비해서는 18.3%의 높은 신장율을 보였다. 내수출하의 호조는 금년중 지속된 수요감소에 대한 반등효과의 성격이 강해 본격적인 회복국면으로 단정하기는 다소 이른 감이 있으나, 관련 산업의 경기가 바닥권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징조로 볼 수도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수출은 가동을 하향조정과 내수의 소폭 회복에 따른 여유 물량의 감소로 前月에 비해 줄었으나 전년동월에 비해서는 23.6%의 높은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TPA의 가격하락세 지속 등, 수출가격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출물량의 급증과는 달리 1~9월중 수출금액은 전년동기대비 0.5% 증가에 머물렀다.

한편 韓·日 상호간의 협력에 따른 稼動 단축, 중국의 홍수에 따른 特需 등에 기인하여 LDPE, HDPE, PP, PVC 등 주요 합성수지 품목의 10월, 11월 오판가격이 톤당 30~70달러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4/4분기의 수출 전망이 밝아 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그간 惡化되었던 업계의 수출채산성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시아지역의 경기 수축 지속과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수입구매력 弱化 등으로 가격회복세가 오래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석유화학 ◆ (千M/T, %)

	1997. 9월		1998. 9월		1998. 1~9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生産	1,106	△0.3	25.9	1,101	△1.7	△0.5	10,005	7.8
・出荷	1,096	△1.2	18.9	1,179	2.6	7.6	10,026	10.1
(內需)	643	3.7	15.2	619	18.3	△3.7	5,279	△6.4
(輸出)	453	△7.6	24.7	560	△10.5	23.6	4,747	36.9

◇ 非金屬鑛物

9월중 시멘트 내수는 4,498천M/T을 기록, 전년동월대비 12.1% 감소하여 감소폭이 크게 둔화되었고, 前月對比로는 40.0% 증가하여 하반기 들어 처음으로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이처럼 內需가 前月에 비해 크게 늘고 전년동월대비로도 감소폭이 줄어든 것은 건설경기가 호전되었다기 보다는 7, 8월의 시멘트 내수가 雨期로 인해 워낙 부진하였고, 지난해와 달리 추석 連休가 없었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생산도 내수증가와 맞물리면서 4,547천 M/T을 기록하여 전월대비 33.5% 증가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도 10.9% 감소하여 금년 들어 가장 작은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수출은 128천M/T으로 前月보다 3.8% 감소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220.0%나 증가하여 수출을 통하여 내수부진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17천M/T을 기록하여 전월보다는 다소 늘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오히려 95.1% 감소하였다.

◆ 비금속광물 ◆ (千M/T, %)

	1997. 9월		1998. 9월		1998. 1~9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 生産	5,102	0.9	△0.3	4,547	33.5	△10.9	33,881	△22.2
· 出 荷	5,158	△5.3	△0.9	4,626	38.3	△10.3	34,546	△23.4
(內 需)	5,118	△5.6	△0.9	4,498	40.0	△12.1	33,749	△24.4
(輸 出)	40	60.0	△4.8	128	△3.8	220.0	797	76.7

◇ 섬유(纖維)

9월중 섬유수출은 織物, 纖維絲, 섬유원료 수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섬유제품의 수출호조로 전년동월과 비슷한 1,482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부문별로 보면 섬유원료의 수출이 인조섬유의 침체지속으로 전년동월대비 16.3% 감소한

63백만달러에 그쳤고, 섬유사도 면사, 모사, 견사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수출비중이 높은 화섬F絲와 화섬방적사, 마사 등의 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11.3% 감소한 117백만달러에 머물렀다.

직물 수출은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의 경기침체로 인조 섬유직물, 견직물, 면직물 등의 수출이 저조하여, 전년동월대비 7.9% 감소한 762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반면 섬유제품의 수출은 가격경쟁력 상승에 따른 미국, 일본, 대만, 홍콩 등지로의 수출증대로 전년동월대비 20.7% 증가한 540백만달러에 이르렀다.

지역별로는 미국, EU로의 수출이 衣類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30.7%, 17.9% 늘었으나 직물, 섬유사, 섬유원료의 主 輸出市場인 중국, 홍콩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8.5%, 16.4% 감소하였다.

한편 9월중 수출물량이 전년동월대비 18.8%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업체간의 지나친 가격경쟁 등으로 수출단가가 15.8%나 下落, 수출채산성은 여전히 好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석유화학 ◆ (백만 달러, %)

	1997. 9월		1998. 9월		1998. 1~9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輸 出	1,481	△0.3	2.1	1,482	12.6	0.0	12,784	△7.2
섬유원료	75	1.8	0.9	63	25.2	△16.3	589	△17.5
섬유사	132	△4.1	6.7	117	26.4	△11.3	1,213	△11.1
직 물	827	1.4	2.8	762	14.8	△7.9	6,848	△13.6
섬유제품	448	△2.6	△0.3	540	6.1	20.7	4,134	9.5

◇ 조선(造船)

9월중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량은 현대중공업, 대우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소들의 受注 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84.3% 감소

한 5척 299천G/T에 그쳤으며, 船種別로는 탱커가 4척 260천G/T으로 전체 수주의 87%를 점하였고, 나머지는 컨테이너船으로 1척 39천G/T이었다.

9월중 建造量은 12척 539천G/T에 그쳐 전년동월대비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주잔량은 9월말 현재 전년동월대비 11.8% 증가한 307척 18,813천G/T에 달해 향후 약 2년 동안은 안정적인 조업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해 韓·日 양국의 VLCC(20만DWT 이상의 대형 油槽船)수주량은 지난해의 55척에서 대폭 줄어 40척 정도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VLCC 수주에 있어 韓·日 양국의 선두 경쟁이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작년에는 우리나라가 29척의 VLCC를 수주하여 일본의 29척을 제치고 선두를 차지하였으나, 올해는 9월말 현재 일본이 12척을 수주하여 우리나라의 7척보다 앞서 있는 상태이다. 현재 21척 이상의 VLCC 수주상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의 엔貨강세로 우리나라가 가격경쟁면에서 다소 유리 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선두유지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조선업계의 受注船價는 일본에 비해 약 10% 정도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조 선 ◆
(千G/T, %)

	1997. 9월			1998. 9월			1998. 1~9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 受注	1,906	724.7	552.5	299	△60.3	△84.3	6,833	△22.0
• 建造	577	△6.5	55.1	539	△29.2	△6.6	5,677	13.7
• 受注殘量	16,832	8.6	44.2	18,813	△1.3	11.8	18,813	11.8

◇ 해 운(海運)

9월중 건貨물운임지수 MRI는 前月の 193.8에서 0.8포인트 상승한 194.6을 나타내었다. 이는 아시아의 금융위기로 困해 크게 위

축되었던 해운경기가 바닥을 치고 점차 회복 단계에 있다는 기대감과 아시아/유럽의 석탄 물동량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Capesize級의 경우, 태평양 水域에서는 프랑스의 석탄 구매량 증가, 아시아 국가들의 發電用 燃料탄 수입증가 등으로 호주產 석탄수요가 크게 늘면서 強勢를 보였고, 대서양 水域에서도 南美, 남아프리카產 철광석에 대한 중국 제철소들의 선적 물량 增加가 強勢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Panamax級 穀物船 시장에서는 대서양 水域內 곡물운임이 南美產 곡물 물동량과 중국의 미국產 곡물 수입수요 증가로 회복세를 보였고, 태평양 수역 운임도 선박 수요가 늘면서 빠르게 상승하였다.

U.S/Gulf/Japan航路 곡물운임은 9월초의 톤당 13달러에서 9월말에는 14달러대에 진입하였고, Handysize級은 올해 핸디막스級 22척이 해체되고 56척이 새로 인도되어 선박 공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서양 沿岸과 아시아 水域內의 선박수요 증가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였다.

한편 탱커 운임지수 WS(World Scale)은 前月の 70.0에서 22.0 포인트 하락한 48.0을 기록하여 금년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처럼 탱커 운임지수가 크게 하락한 것은 미국 및 유럽의 높은 재고량과 OPEC 減產,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국 정유사들의 수요 감소, 선주들의 선령(船齡) 25년 이상 노후선을 계속 운항하려는 경향 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II. 대외거래(對外去來)

◇ 수출(輸出)

10월중 우리나라 수출은 아시아 등에서의 수입수요의 감소, 수출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

對 外 去 來
(억달러, 前年同相比, %)

	97. 10월	97. 1~10월	98. 10월pJ	98. 1~10월pJ
· 輸出 (增減率)	124.7 (5.2)	1,061.0 (5.5)	108.7 (△12.8)	1,086.6 (△2.9)
· 輸入 (增減率)	125.9 (△7.0)	1,226.9 (△0.6)	76.9 (△39.0)	767.0 (△37.5)
· 輸出入差	△1.3	△107.9	31.8	319.6
· 輸出信用狀來到 (增減率)	58.6 (2.3)	575.1 (△1.9)	44.7 (△23.7)	482.1 (△16.1)
· 輸入信用狀開設 (增減率)	109.2 (△0.4)	1,082.7 (3.7)	51.8 (△52.5)	511.0 (△52.8)

로 전년동월대비 12.8% 감소한 108.7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전월의 △3.9%에 비해 감소세가 늘어난 것은 추석연휴로 인해 통관일수(2일)가 줄었기 때문이다.

10월중 수출신용장(L/C)來到는 석유제품 △72.2%, 화학제품 △40.1%, 기계류 △

26.5%, 자동차 및 부속품 △48.9% 등 주요 품목들이 큰 폭의 감소세 지속으로 전년동월(58.6억달러)대비 23.7% 감소한 44.7억달러를 기록하였다.

한편 9월중 품목별 수출은 경공업제품에 있어서 타이어·튜브 2.1%, 섬유류 1.0% 등은 증가하였으나, 신발류 등은 △10.0%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6% 감소한 25.2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중화학공업제품에 있어서는 자동차 28.9%, 선박 11.4%, 정밀기기 68.4% 등은 증가하였으나, 전자제품 △6.1%, 기계류 △17.7%, 화장품 △9.7% 등이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2.2% 감소한 76.3억달러를 기록하여 전체수출은 109.0억달러로 전년동월에 비해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品 目 別 輸 出
(通關, 억달러, 前年同相比, %)

	97. 7		97. 1~9월		98. 8月		9月pJ		98. 1~9月pJ	
	金 額	增 減 率	金 額	增 減 率	金 額	增 減 率	金 額	增 減 率	金 額	增 減 率
食料및消費財	2.4	0.4	21.5	△3.4	1.7	△30.1	2.1	△11.9	19.4	△10.0
原料 및 燃 料	7.2	41.3	58.7	33.0	5.3	△10.7	5.3	△27.2	59.0	0.6
輕 工 業 製 品	25.6	0.3	250.5	5.9	23.2	△15.1	25.2	△1.6	241.6	△3.6
織 維 類	14.1	2.0	131.2	3.4	12.7	△10.3	14.2	1.0	122.5	△6.6
신 발 類	0.4	△38.2	4.7	△29.1	0.3	△13.7	0.4	△10.0	3.6	△24.2
타이어·튜브	1.2	14.0	10.7	△6.9	1.1	2.6	1.2	2.1	11.8	9.9
重化學工業製品	78.1	16.8	663.6	3.8	67.6	△9.5	76.3	△2.2	657.9	△0.9
化 工 品	7.3	20.6	62.8	20.9	6.6	△13.0	6.6	△9.7	62.1	△1.1
金 屬 製 品	7.4	27.5	62.8	17.9	7.3	5.7	7.9	7.5	74.3	18.4
機 械 類	14.9	19.5	120.5	11.9	10.3	△23.1	12.2	△17.7	109.4	△9.3
電氣·電子製品	23.4	23.1	192.2	7.3	20.9	△12.3	21.9	△6.1	184.4	△4.1
自 動 車	8.2	△10.2	85.5	10.0	6.0	△25.1	10.6	28.9	76.4	△10.6
船 舶	5.2	71.7	39.2	△17.5	6.7	48.9	5.8	11.4	52.1	32.9
統 計	113.3	13.4	994.4	5.5	97.8	△11.4	109.0	△3.9	977.9	△1.7

註) 관세청 분류기준에 의함

◇ 수입(輸入)

10월중 수입은 국제원자재가격의 하락, 내수감소, 금융경색 등으로 전년 동월의 125.9억달러에 비해 39.0% 감소한 76.9억달러를 기록하여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졌다.

10월중 수입신용장(L/C)開設은 기계류 △65.6%, 전기·전자 △45.4%, 섬유류 △51.5%, 석유제품 △32.0%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큰 폭의 감소세가 지속되어 전년동월의 109.2억달러에 비해 52.5% 감소한 51.8억달러를 기록하였다.

한편, 9월중 품목별 수입에 있어서는 食料 및 消費財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의 지속, 국제곡물가격의 하락 등으로 전년동월의 13.3억달러에 비해 △44.2% 감소한 7.4억달러를 기록하였고, 원자재는 내수위축 및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지속 등으로 原油 △48.1%, 철강재 △56.4%, 화학제품 △25.3% 등 대부분의 품목이 감소하여 전년동월의 60.6억달러에 비해 37.5% 감소한 37.9억달러를 기록하였다. 또한 자본재는 설비투자 부진으로 기계류(△52.4%), 전기·전자(△16.8%), 정밀기기(△37.7%)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의 41.5억달러에 비해 34.5% 감소한 27.2억달러를 기록하였다.

◇ 지역별 수출입

먼저 9월중 지역별 수출에 있어서는 對선진국 수출은 일본(△16.3%)으로의 수출은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미국(2.4%) 및 EU(11.2%)에 대한 수출은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4.9% 증가하였으며, 對開途國 수출은 동남아(△18.3%) 및 중국(△14.8%)에 대한

品 目 別 輸 入

(通關基準, 억달러, 前年同期比, %)

	97. 9月		97. 1~9月		98. 8月		9月p _j		98. 1~9月p _j	
	金 額	增減率	金 額	增減率	金 額	增減率	金 額	增減率	金 額	增減率
食料 및 消費財	13.3	△3.3	120.6	△2.8	7.1	△46.8	7.4	△44.2	68.3	△43.4
穀 物	2.3	△15.8	19.7	△20.3	1.6	△16.2	15.6	△33.2	16.9	△14.2
直接消費財	3.9	7.5	36.5	4.3	2.3	△44.4	2.7	△30.8	21.7	△40.4
耐 久 財	4.1	△4.2	40.6	△1.4	2.1	△46.8	2.2	△46.7	20.8	△48.8
非 耐 久 財	3.0	△3.8	23.8	2.9	1.0	△68.9	1.0	△67.0	8.9	△62.6
原料 및 燃料	60.6	9.5	578.0	5.6	38.1	△37.8	37.9	△37.5	373.4	△35.4
原 油	14.6	17.6	130.5	32.3	8.7	△31.8	7.6	△48.1	83.9	△35.7
石 油 製 品	2.5	△3.9	25.9	△19.5	1.7	△25.8	1.8	△28.8	18.8	△27.3
輕工業原料	4.1	△7.0	41.4	△9.0	2.7	△36.8	2.8	△32.7	25.8	△37.8
化學製品	6.6	2.4	65.4	1.4	4.7	△32.9	4.9	△25.3	45.7	△30.0
鐵 鋼 材	4.9	13.9	43.6	△16.6	2.0	△60.0	2.1	△56.4	23.4	△46.4
資 本 財	41.5	△7.5	402.4	△5.8	26.0	△35.6	27.2	△34.5	248.4	△38.3
機 械 類	15.8	△15.1	152.1	△16.9	7.1	△51.7	7.5	△52.4	70.0	△54.0
電 氣 電 子	19.2	17.8	177.4	14.3	14.2	△28.4	16.0	△16.8	135.8	△23.4
總 計	115.5	1.2	1,101.0	0.2	71.2	△38.1	72.5	△37.2	690.1	△37.3

註) 관세청 분류기준에 의함

地域別輸出入

(通關, 억달러, 前年同期比, %)

		97. 9月	97. 1~9月	98. 8月	9月pJ	98. 1~9月pJ
對先進國	輸出	49.8	436.2	45.9	52.3	467.5
	(增減率)	(17.1)	(2.9)	(△3.6)	(4.9)	(7.2)
	輸入	69.8	690.3	43.3	45.5	421.0
	(增減率)	(△5.8)	(△5.0)	(△40.4)	(△34.9)	(△39.0)
輸出入差		△20.0	△254.2	2.5	6.8	46.5
美國	輸出	19.4	158.5	18.4	19.9	167.6
	(增減率)	(18.7)	(△2.1)	(2.7)	(2.4)	(5.7)
	輸入	23.0	234.2	15.9	17.4	150.4
	(增減率)	(△4.8)	(△4.5)	(△31.9)	(△24.5)	(△35.8)
輸出入差		△3.6	△75.7	2.5	2.5	17.1
日本	輸出	11.5	110.4	8.4	9.7	88.7
	(增減率)	(△3.8)	(△5.8)	(△30.3)	(△16.3)	(△19.6)
	輸入	22.0	212.8	12.0	13.4	122.9
	(增減率)	(△6.0)	(△8.8)	(△44.7)	(△39.1)	(△42.3)
輸出入差		△10.5	△102.4	△3.6	△3.8	△34.2
EU	輸出	14.1	117.5	13.3	15.6	129.1
	(增減率)	(32.5)	(3.6)	(7.9)	(11.2)	(9.8)
	輸入	14.9	145.1	8.1	8.0	82.8
	(增減率)	(△10.4)	(△6.6)	(△51.2)	(△46.2)	(△42.9)
輸出入差		△0.9	△27.5	5.2	7.6	46.2
對開途國	輸出	63.5	558.2	51.9	56.7	510.4
	(增減率)	(10.7)	(7.7)	(△17.3)	(△10.8)	(△8.6)
	輸入	45.7	410.7	27.9	27.1	269.2
	(增減率)	(14.3)	(10.6)	(△34.2)	(△40.7)	(△34.5)
輸出入差		17.9	147.5	24.1	29.6	241.2
東南亞	輸出	30.5	276.5	23.7	24.9	221.1
	(增減率)	(6.3)	(7.2)	(△26.1)	(△18.3)	(△20.0)
	輸入	11.5	118.9	8.0	9.0	82.4
	(增減率)	(△5.4)	(3.2)	(△29.9)	(△21.2)	(△30.7)
輸出入差		19.0	157.6	15.7	15.9	138.6
中國	輸出	10.8	98.0	8.5	9.2	88.9
	(增減率)	(17.1)	(23.7)	(△19.5)	(△14.8)	(△9.2)
	輸入	9.2	75.3	5.9	5.1	48.7
	(增減率)	(46.6)	(21.8)	(△30.3)	(△45.1)	(△35.3)
輸出入差		1.6	22.6	2.6	4.2	40.2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0.8% 감소하였다.

지역별 수입의 경우는對 선진국 수입은對미(△24.5%),對일(△39.1%),對EU(46.2%) 등을 중심으로△34.9%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대개도국 수입의 경우도 대중국(△46.2%), 대동남아(△21.2%) 등, 큰 폭의 감소세가 지속되어 전년동월대비 40.7% 감소하였다.

따라서 9월중 수출입차는 대선진국에 있어서 대일본(△3.8억달러)은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대미(2.5억달러), 대EU(7.6억달러) 등에서 흑자를 기록, 결과적으로 6.8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대개도국은 대동남아(15.8억달러), 대중국(4.2억달러), 대중남미(6.5억달러) 등에서 흑자를 기록하여 29.6억 달러의 흑자를 실현하였다.

◇ 국제수지(國際收支)

9월중 경상수지는 수출규모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흑자규모가 전월의 22.2억달러보다 증가한 36.8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상품수지에 있어서 수입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수출이 증가하여 흑자규모가 전월의 28.2억달러보

다 증가한 38.3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서비스 수지는 여행수지 흑자확대 등에 힘입어 전월의 2.5억달러 적자에서 0.6억달러의 흑자로 反轉되었다.

소득수지는 대외이자지급이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투자소득수입이 소폭 확대되어 적자폭이 전월(△5.0억달러)보다 축소된 4.3억달러를 기록하였다.

경상이전수지는 해외교포의 국내송금 등으로 전월의 1.5억달러보다 늘어난 2.1억달러의 흑자를 나타냈다.

한편 9월중 자본수지는 IMF자금도입,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외화채권의 만기도래 상환 및 해외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16.1억달러의 流出超를 기록하였다.

형태별로는 투자수지에 있어서 직접투자과 증권투자가 각각 5.8억달러와 16.1억달러의

경 상 수 지

(억달러)

	97.9月	97.1~9月	98.8月	9月p _J	98.1~9月p _J
經常收支	△5.1	△121.3	22.2	36.8	311.7
商品收支	4.0	△62.3	28.2	38.3	314.6
輸出(FOB)	116.0	1,018.8	98.2	108.8	984.9
輸入(FOB)	120.0	1,081.2	70.0	70.5	670.4
서비스收支	△6.2	△38.8	△2.5	0.6	2.5
所得收支	△2.5	△17.8	△5.0	4.3	△30.8
經常移轉收支	△0.3	△2.3	1.5	2.1	25.4

순유출을 나타냈고, 기타투자는 5.9억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하였으며, 주체별로는 내국인 투자가 국내은행들의 대출금 회수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및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증가로 11.5억달러의 순유출을 보였다. 외국인 투자는 만기도래에 따른 외화채권 상환 등으로 4.5억달러의 純流出을 기록하였다.

資 本 收 支

(억달러)

	97.9月	97.1~9月	98.8月	98.9月p _J	98.1~9月p _J
資本收支(A+B)	4.5	112.3	3.6	△16.1	△11.9
A. 投資收支	5.0	117.0	3.8	△16.0	△14.6
直接投資	△1.4	△13.9	△1.8	△5.8	△0.4
證券投資	19.5	138.7	△11.2	△16.1	8.8
其他投資	△13.1	△7.7	16.8	5.9	△23.0
資產(內國人投資)	1.2	△100.9	14.5	△11.5	△17.6
直接投資	△1.8	△34.2	△4.9	△10.1	△33.5
證券投資	2.0	△5.1	1.5	△4.3	△0.6
其他投資	1.1	△61.7	17.9	2.8	16.5
(貸出)	4.1	△15.0	14.7	8.9	32.1
負債(外國人投資)	3.7	217.9	△10.7	△4.5	3.1
直接投資	0.4	20.3	3.2	4.3	33.2
證券投資	17.5	143.7	△12.7	△11.8	9.3
(外國人株式資金)	△3.7	19.9	△0.5	0.5	29.4
其他投資	△14.2	54.0	△1.1	3.1	△39.4
(借入)	△10.0	44.7	△7.7	△1.0	10.1
B. 其他資本收支	△0.5	△4.8	△0.2	△0.1	2.7